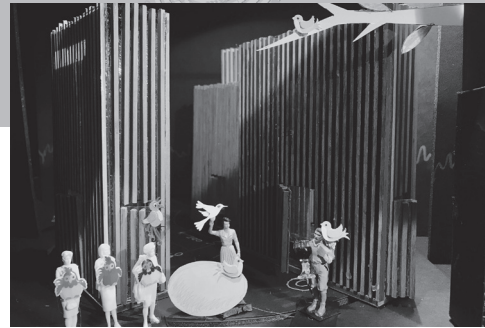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이달의 추천 공연

123



1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Die Zauberflöte NEW>

국립오페라단은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 <마술피리>로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한다.

쉬카네더의 대본을 바탕으로 하는 오페라 <마술피리>는 밤과 낮으로 상징되는 이성과 육체적 세계의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두 남녀

가 갖가지 시험을 통과하며 결국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얼핏 보면 이성과 계몽의 세계가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모차르트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불가분한 모순적 관계에 있음을 간파하여 이를 작품에 녹여냈다.

‘밤의 여왕’ 아리아를 비롯하여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마술피리>는 오페라를 처음 찾는 관객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2018년 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인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 참여했던 독일 연출가 크리스티안 파데와 디자이너 알렉산더 린틀이 합류하여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춘다. 타미노 역은 테너 허영훈, 파미나 역은 소프라노 김순영, 파파게노 역은 바리톤 안갑성이 출연한다. 밤의 여왕은 소프라노 소니아 그라네, 자라스트로 역은 베이스 양희준이 맡을 예정이다.

2019. 3. 28(목)~31(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TAKHYUNG KIM
바리톤 김태형

KIM SUNYOUNG
소프라노 김순영

HYUN-JIN YUN
베이스 양희준

KBS교향악단 화이트데이 콘체르토
클래식캐슬
CLASSIC CASTLE

김서형의 클래식개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3.14. THU 8PM
롯데콘서트홀

티켓: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윤석 1만원 / 예매: 1544-1555 / 1544-7744
주최/주관: (재)KBS교향악단 / 문의: (재)KBS교향악단 02-6099-7409

2 <음악 코디네이터
김서형의 클래식 개슬
KBS교향악단 화이트데이 콘체르토>
“제가 소개하는 영화 음악,
전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KBS교향악단은 오는 3월 14일(목) 롯데콘서트홀에서 음악 코디네이터 김서형과 함께 <김서형의 클래식 캐슬 - KBS교향악단 화이트데이 콘서트>를 개최한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소수를 위한 입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열연한 배우 김서형이 이번 음악회에서 음악 코디네이터로 사표를 맡았다. 김서형은 “스카이 캐슬에서 김주영 역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번 공연은 저 스스로에게도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 같다.”며 출연 소감을 밝혔다. 본 공연은 KBS교향악단의 부지휘자 윤현진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함께 출연한다. 연주되는 곡은 <아마테우스>, <7년만의 외출> 영화에 나온 클래식 음악과 <시네마천국>, <러브어페어> 등 영화 배경 음악이 연주된다. KBS교향악단 관계자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멋진 음악 코디네이터가 공연을 진행하게 되어 관객들이 훨씬 더 음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었다. 2014년부터 올해로 6년째 진행되고 있는 KBS교향악단의 화이트데이 콘서트는 그동안 클래식 소품, 팬텀싱어, 뮤지컬 배우와의 협업 등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KBS교향악단의 자체 기획 연주회이다. 공연의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 02-6099-7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3 3.1운동 100주년 기념 2019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운동주, 달을 쏘다.>

(재)서울예술단의 대표적인 창작가무극 <운동주, 달을 쏘다.>가 3월 5일(화)부터 3월 17일(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서울예술단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 강점기, 비극의 역사에 맞서 고뇌하던 시인 운동주와 뜨거웠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린다. 2012년 초연 이래, 관객들의 두터운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매 공연 100%에 육박하는 높은 객석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다섯 번째 공연을 앞두고 더욱 업그레이드 된 작품을 예고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총 대신 연필을 든 자신을 끊임없이 부끄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시대의 비극에 맞서 시를 통해 저항했던 청년 윤동주. 공연은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지만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짧은 생을 마감한 윤동주가 남긴 아름다운 시들과 치열했던 청춘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그려낸다.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었던 그의 시처럼, 윤동주의 순결한 시심(詩心)과 티 없는 애국심은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큰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윤동주 역은 초연부터 4번의 공연 모두 윤동주를 맡아, '윤동주 장인'으로 불리는 배우 박영수가 다시 한 번 연기한다. 시인의 고뇌와 아픔을 고스란히 품은 그의 윤동주는 다섯 번째 공연을 맞아 한층 깊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윤동주로 등극한 배우 신상언은 청년 윤동주가 연상되는 외모와 미성이 돋보이는 서울예술단의 신예이다.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던 시인을 마주한 신인의 각오가 남다른바, 신상언만의 감성과 해석으로 만날 윤동주 또한 기대를 모은다. 윤동주와 청춘을 함께한 친구들 송몽규 역과 강처중 역에는 박영수와 함께 '슈도풍' 삼총사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은 김도빈, 조풍래가 나란히 캐스팅되어 작품에 에너지를 더한다. 또한 서울예

술단의 기대주 강상준과 김용한이 송몽규 역과 강처중 역에 각각 이름을 올려 선배들과 번갈아 시대의 청춘들을 연기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5일(화) ~ 3월 17일(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공연시간 : 화·목·금 오후 8시/수 오후 3시, 8시/토 오후 3시, 7시/일 오후 2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러닝타임 : 145분 (인터미션 포함)

티켓가격 : R석 9만원/S석 6만원/A석 3만원



고시계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